

# 中東石油의 어제와 오늘 (下)

—이코노미스트誌에서—

## 中東産油國의 역할

中東 산유국들은 국제석유시장에서 두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石油資源의 국유화 이전의 石油매이저들과 같이 막대한 石油 매장량과 생산능력을 이용하여 시장을 관리, 즉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석유의 공급 및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石油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石油産業을 건설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OPEC 原油가격 인하정책과 마케팅 노력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石油판매량은 신장될 것이다.

지난 해 3월에 책정한 배럴당 29달러의 基準油價를 고수하려면 인내와 자제를 OPEC의 정책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가격협정에 따른 전체 산유량 실링 및 각 산유국간의 할당량은 회원국들의 자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몇몇 회원국들은 이미 할당량에 대한 자제력을 잃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OPEC 전체 산유량은 하루 1,850만배럴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現物市場에서의 油價는 여전히 침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과잉생산추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거대한 石油부존자원과 산유능력을 가지고 OPEC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自國 할당량에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산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로서

는 마음만 먹으면 현 산유량 하루 4-5백만 배럴에서 언제든지 1천만배럴 수준으로 즉각 산유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데다가 매일 매일의 石油收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유량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는 만일 어떤 회원국이 가격인상 노선을 추구할 경우 산유량을 즉각 확대하여 이를 저지할 수도 있어 사우디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할인과 초과생산의 편법에 대하여는 사우디는 저장능력도 제한되어 있어 추가생산으로 가격을 더욱 떨어뜨리겠다는 위협 이외에는 수단이 없다. 결국은 야마니의 외교수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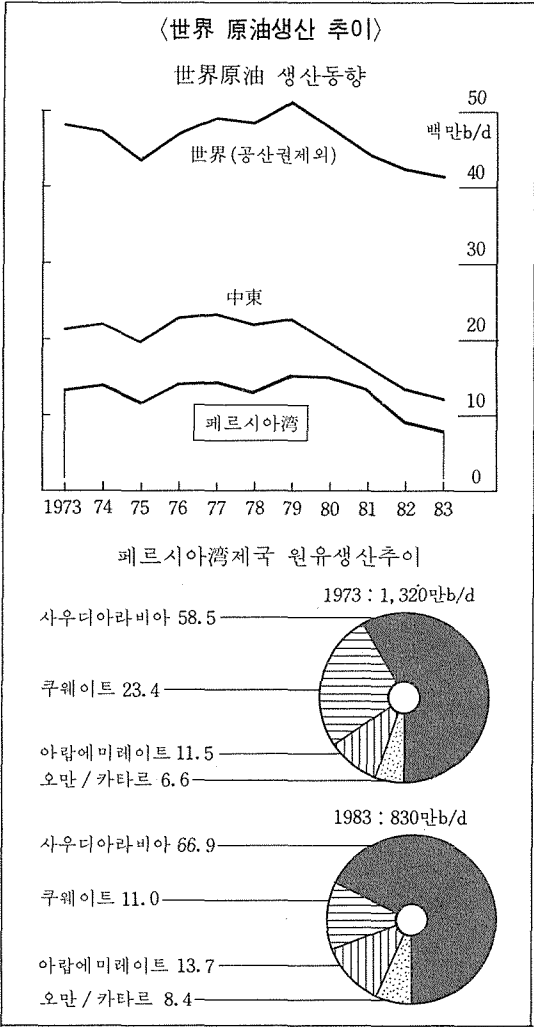
## 産油國의 사정

지난 7월 10일 빈에서 개최된 OPEC 總會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탐 데이비드웨스트 石油相이 자국의 산유할당량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 야마니 石油相의 주도하에 관철되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초과생산을 중단하고 당초에 약정한 OPEC 전체 산유량인 하루 1천750만 배럴선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회원국들에 대한 유일한 위로는 생산제한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OPEC는 나이지리아에 8월 할당량을 130만배럴에서 140만 배럴로, 9월 할당량을 145만배럴로 각각 높여 주

기로 했다. 그러나 9월 이후에 관해서는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 이는 石油수요가 신장돼 전체 할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OPEC는 국제석유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非OPEC 산유국들에게도 산유량을 줄이도록 설득시키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사실적으로는 힘든 문제이다.

편이라는 점이 효과를 보았다. 전통적으로 나이지리아 석유는 英國의 北海원유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나 北海산유량이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英國에게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빼앗겼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北海원유와 대등한 경쟁력을 회복키 위해 나이지리아는 1983년 3월 OPEC의 전반적인 5달러 인하에 비해 높은 배럴당 5.50달러를 인하하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OPEC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다른 產油국들도 산유할당량을 확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면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부채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랍 에미라이트는 외국회사와 합작으로 신규油田을 개발하였으나, 현재의 할당량으로서는 전면가동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 이란과 이라크는 전쟁으로 황폐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石油를 생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OPEC로서는 회원국에 할당해줄 여력이 없다. 石油수요는 연간 1% 정도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自由世界 경제는 연평균 3%의 실질 GNP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1990년에 가셔도 OPEC의 생산량은 여전히 하루 2천 200만 배럴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OPEC의 당초 油價인하조치가 수요를 대폭 자극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는데, 첫째는 석유수요가 油價



데이비드·웨스트 나이지리아 石油相은 자국의 산유할당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몇가지 설득력 있는 사실을 들고 나왔다.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났고, 막대한 외채를 해결키 위한 방법으로 단기부채를 증장기 부채로 대환해야 할 형편일 뿐만 아니라, 파탄에 가까운 경제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石油收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다 나이지리아가 OPEC 내에서 빈곤한

OPEC의 生産쿼타 및 생산능력

(單位 : 천B/D)

	쿼 타	정제능력
사우디아라비아	—	11,300
이란	2,400	3,000
베네수엘라	1,675	2,500
나이지리아	1,300	2,400
인도네시아	1,300	1,600
이라크	1,200	1,500
리비아	1,100	2,000
아랍에미라이트	1,100	2,920
쿠웨이트	1,050	2,800
알제리	725	1,100
카타르	300	650
에콰도르	200	250
가봉	150	200
計	17,500	32,220

□ 特別資料 □

변동에 완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둘째로 달러貨의 환율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油價인하의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다. 이 지역국가들은 OPEC 전체 산유량을 규제해 놓은 채 自國의 석유수출은 착실하게 유지시키려

### OPEC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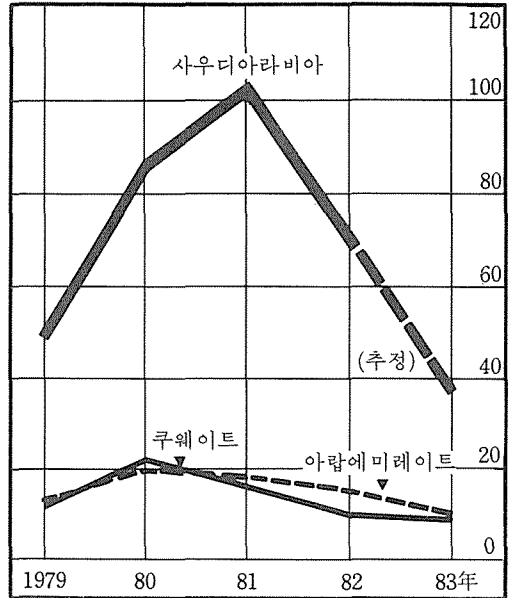
OPEC로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OPEC는 회원국들의 제품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제품수출쪽으로 눈을 돌려 대규모 精油工場 건설에 주력하게 되었다. 단순히 산유할당, 가격통제 등의 규제로는 신규 정유공장이 야기시키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며, 제품판매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油價인하 압력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현재 초과정제능력의 상존으로 많은 정유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OPEC 회원국들이 이와 같이 위험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산유국의 정유공장에 공급하는 여러 原油에 대해 대체, 얼마만큼의 油價를 부담시켜야 하느냐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油種間 가격차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사우디의 야마니 石油相은 아프리카 輕質油 가격을 기존원유보다 배럴당 1.5달러 높이 책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1.0달러에 불과한 차이 때문에 산유국들간에 적지않은 불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장기적인 문제점의 하나를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몇년 안가서 OPEC 산유국들은 油價의 실질적인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세계 石油 매장량의 3분의 2를 中東산유국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세력이 또 다시 강대해 질 것은 당연하다. 그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나이지리아·알제리·리비아 및 인도네시아등 다음 세기초에 매장량이 고갈되는 국가들은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반면, 앞으로 수십년동안은 고갈위험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GCC 국가들은 보다 온건한 油價정책을 추구하여 代替에너지 출현을 막는데 일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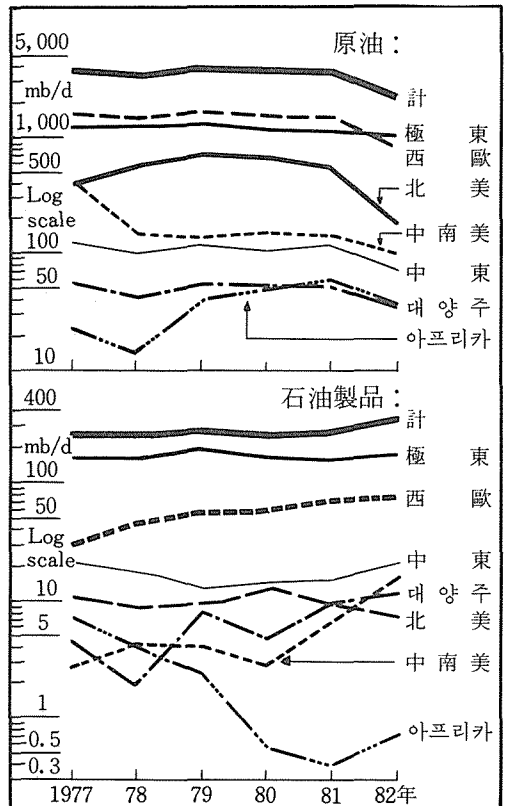
### 原油 판매전략

中東국가들의 경제는 거의 石油에 의존하고 있

中東産油國의 石油收入 추이 (10억달러)



中東石油 輸出先



노력하고 있다. 原油의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지자 많은 구매자들이 中東산유국들에게 등을 돌리고 보다 싼 原油의 구매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고객을 잡아두기란 대단히 어렵고 새로운 구매자들을 유치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原油 판매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도 및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산유국들도 다음과 같은 기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공급과잉 상태가 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들의 原油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오일 쇼크가 발발했던 70년대에 GCC 국가들은 그들의 원유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OPEC 가격구조의 하단부분 즉 OPEC 가격중 비교적 저렴한 쪽을 택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격구조상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레이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油種을 한데 묶어 파는 소위 패키지 판매를 하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예를 들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라비안 라이트(60%), 아라비안 미디엄(20%), 상대가 격이 낮은 아라비안 헤비(20%)를 묶어 팔고 있다.

原油와 석유제품 판매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 지금까지는 쿠웨이트만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었으나, 앞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출용 정유공장이 가동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1982년 쿠웨이트의 석유제품 수출량이 原油 판매량을 처음으로 넘어서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앞으로 2년내에 새로이 하루 1백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이 가동되면 사우디는 原油와 製品을 판매할 수입선과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장기적인 단골 구매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난 1·2년 동안에 대부분의 메이저들은 GCC 국가산 原油 도입을 대폭 줄였다. GCC 국가들은 자국산 원유의 現物市場 판매를 계속 줄여왔으며,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오는 고객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는 불쾌할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라비아 반도의 3대 產油國, 즉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그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성취해야할 기본과업은 대동소이하지만, 日淺한 국영석유회사의 구조상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3

개국의 국영석유회사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다.

### 사우디 石油産業의 3대 견인차

사우디에는 원유판매의 판로는 3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즉 아람코와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민 및 최근 現物市場 판매를 위해 창설된 마케팅 子會社 Norbec이 그것이다. 3社간의 협조관계는 비교적 잘되고 있지는 않다. 페트로민은 국내시장에 石油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Norbec은 사우디의 原油판매를 신장시키고 OPEC 산유량 조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原油수출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람코는 原油의 탐사개발 생산을 초기부터 담당해온 메이저들의 콘소시엄이다.

사우디의 石油政策을 보면, 페트로민의 수출용 精油工場과 아람코의 석유탐사 개발 생산시설을 통합해 새로운 국영석유회사를 설립하고 국내부분의 정유공장과 마케팅망은 페트로민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마니 石油相이 지적했듯이, 국내 전문 인력의 부족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아람코의 탐사 개발사업은 주로 노련한 파트너 회사로부터 파견된 스태프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에 주재하고 있는 서방 石油 전문가들에 의하면, 새로이 국영석유회사를 설립하는데는 적지않은 정치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한다. 세계석유 환경에서 주요한 변수를 이루는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는 또한 사우디의 경제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누구취하에 둘 것인가도 문제다. 물론 야마니 石油相이 총재가 될 것 같지만, 금융·국가경제상인 Abalkhail, 기존 페트로민의 총재인 Taher 등이 사우디 경제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국영석유회사가 없었을 때에는 아람코 파트너 회사들이 사우디와 石油 시장간의 통로가 되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합작 프로젝트에 투자한 회사들은 투자액 100만달러당 하루 500배럴씩의 原油를 도입해 가도록 되어 있다. 페트로민이 약간의 原油를 BP와 같은 石油會社에 판매하고는 있지만, 판매의 대부분은 프랑스등과 정부 차원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석유 공급과잉 사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석유문제에 개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트로민은 곧 쏟아져 나올 석유제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사업에 노력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페트로민의 마케팅 子會社로 알려진 Norbec은 명목상으로는 페트로민의 통제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방 오일맨들이 창설했고 그들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한다. Norbec는 아랍코에 비해서는 경쟁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작다. 창설 직후인 1983년 가을만 하더라도 하루 50만배럴까지 판매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20만배럴 정도를 파는 것이 고작이다. 1983년 겨울부터 84년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石油 판매를 하지 않았고 5천만—7천만배럴의 해상비축에만 전념했다. 이 비축량은 현재 꾸준히 처분되고 있다. 야마니 石油相에 의하면, 현재 설립 계획중인 신규 국영석유회사가 現物市場에서의 석유판매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사우디의 石油產業은 재편성되고 아울러 Norbec은 운영이 중단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코 파트너사간의 관계는 원만치가 못하다. 현재의 불편한 점은 파트너社들이 사우디가 원하는 만큼의 原油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사우디가 OPEC 산유량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떠가는 원유량을 조정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엑슨, 모빌, 소칼 및 텍사코 등 4개 아랍코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 사우디 아라비아에 신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시장여건들이 이에 동조해 주지 않고 오랜 유대관계를 이간시키고 있다. 2년전에 최초로 이들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당시 사우디 原油價는 OPEC 油價구조상 가장 높은 편이어서 이 原油를 도입하여 정제, 판매하던 아랍코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그들의 原油구매량을 가능한 정도까지 줄인바 있으며, 또 Norbec이 출범했을 당시 그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나왔던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이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종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불편한 관계를 겨우 해소했다.

현재는 사우디와 아랍코 회사들과의 관계는 개선되었으나, 소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불만을 표

시하고 있다. 소칼은 최근 유럽에 있는 마케팅 시설들을 처분했고, 사우디 아라비아로 부터 떠온 원유를 텍사코에 재판매하는 등의 무리를 빚고 있으며, 걸프를 매수 합병하여 보유석유 매장량과 생산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사우디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랍코 회사들이 사우디의 석유산업에 속속들이 침투해 있어서 이들중 누군가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국영석유회사 설립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 쿠웨이트의 독자노선

쿠웨이트는 서방메이저들을 불러들여 자국의 통합 국영석유회사를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80년 쿠웨이트는 단일지주회사내에 石油化學, 유조선회사등을 포함한 석유산업의 통합화를 시도하여 KPC(Kuwait Petroleum Corporation)를 설립했다. 그 총재직을 石油相과 財務相을 겸하고 있는 Khalifa가 맡고 있으므로 그 거대한 조직체를 정치적으로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KPC의 개발전략은 몇년전에 입안되어 그의 일환으로 쿠웨이트의 산유량은 1970년 하루 300만배럴 수준에서 현재의 100—150만배럴로 축소조정 되었다. 쿠웨이트는 재원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도 않았으며, 石油 매장량이 급속도로 고갈되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石油 생산으로부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下流部門 즉 정유와 제품의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쿠웨이트는 보다 더 귀중한 기술 및 경영수완을 축적했다.

쿠웨이트가 石油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구축할 수 없는 것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1981년 KPC는 美國의 Sante Fe International 社를 25만달러에 매입했는데, 그 중에는 하나의 石油·가스 탐사회사와 세계গুল지의 정유공장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3년에는 이탈리아·스칸디나비아 국가·베네룩스 3국 등지에 있는 걸프社의 정유공장 및 마케팅 시설 등을 매입했으며, 석유제품의 수출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유럽 및 極東지역의 마케팅망의 매입을 추가로 교섭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수행한 결과 KPC는 GCC 국가들의 原油를 정제·판매하는 서방 石

油 메이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게 되었다. 소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日本을 비롯한 일부 極東의 原油 구매자들은 KPC에 아직도 충실한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쿠웨이트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KPC가 대 고객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KPC는 自國 생산원유의 약 3분의 2를 처리할 수 있는 정유시설을 건설 혹은 매입하였는데, 동사가 걸프사로 부터 매입한 유럽지역의 마케팅 시설을 통해 처리량의 10분의 1정도를 소비자시장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KPC는 석유업계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자로 급속도로 부상했다. 그와 같은 실력자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았다. 1982년, 1983년에는 자국 原油가격을 높게 책정한 대가로 많은 구매자들이 등을 돌렸으며, 서구형의 통합 석유회사를 설립하는 동안 서방석유회사들이 쿠웨이트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태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1983년 6월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중 子會社 Kuwait Oil Tanker Company는 370만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石油化學 부문에서도 심각한 적자현상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소유 유조선 한척없이 모든 메이저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대가였다. 자체 보유 유조선 한척없이 自社 정유공장으로부터 石油製品을 시장에 수송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경영끝에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경영실적을 바꿀 수

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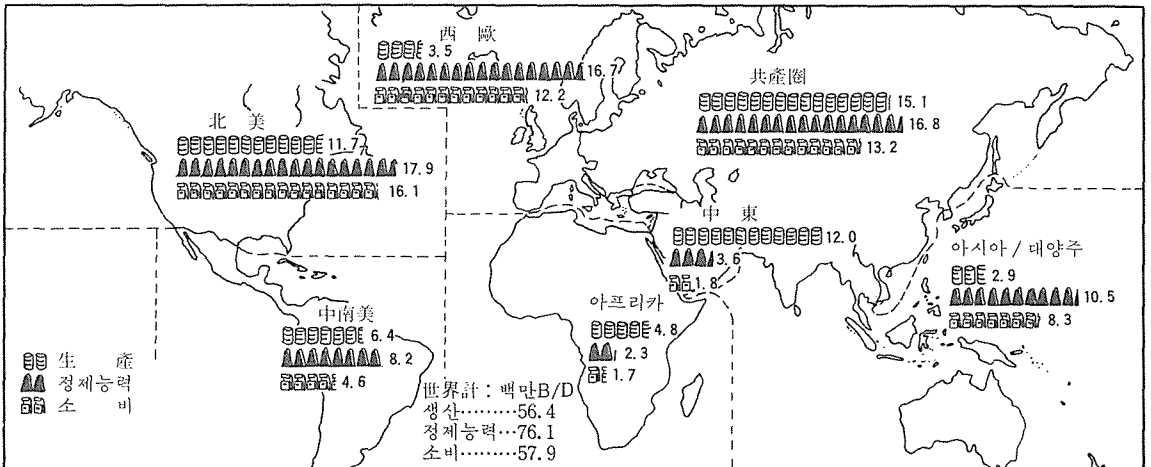
KPC가 정제와 마케팅시설을 확충·통합 함으로써 쿠웨이트의 원유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며 따라 KPC는 영향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었다. 原油판매를 위해 고객을 물색하기 보다는 해외의 석유자원 개발·탐사 및 생산 프로젝트를 매입하는 노선으로 주력하고 있는 KPC는 美國(Santa Fe 제의) 및 북해에서 소규모 이권을 매입했으며, 그밖에도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진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KPC는 해외에서 石油 및 가스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4억 1천만달러를 들여 子會社 Kuwait Foreign Petroleum Exploration Company를 설립, 개발도상국에서의 탐사를 추구하는 한편, 외국 석유회사들의 이권을 투자 매입하기 위해 4억 4천500만달러를 투입하여 Kuwait Petroleum Investments Company를 설립하기도 했다.

###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산업의 통합화 전략

쿠웨이트와는 대조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는 서방 石油 메이저들과 경쟁하지 않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그들을 끌어들여 石油産業을 발전시키는 정책노선을 견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石油 개발에 대한 利權을 부여하고 原油를 떠가도록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는 달리 原油생산에 따른 이익을 메이저들과 분배하는 유일한 OPEC 산유국이다.

世界石油 생산·소비·정제능력 현황

(1983년 현재)



이와 같은 개발계약의 특징은 산유국들도 油田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참가기업 회사들이 그들이 채굴한 原油를 도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현재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구매자들이 아랍에미레이트 石油구매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외국석유회사들은 아랍에미레이트 油田개발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고, 투자분의 대가로 공급하는 원유를 구매하는 것을 불문율로 알고 있다. 7개의 연방 토후국중 3개 토후국만이 石油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부다비가 단연 최대 생산자로서 현재 하루 8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고, 두바이가 하루 30만배럴로 그 뒤를 따르며, 샤르차는 이보다 대폭 떨어지는 하루 5만배럴의 原油를 생산하고 있다. 3개 토후국 모두 자체 국영석유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계획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978년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는 Upper Zakum 油田개발을 목적으로 Jodco(Japan Oil Development Company)와 합작회사를 설립, 거액 48억달러를 투입하여 油田을 개발한 결과 하루 50만 배럴의 原油를 생산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OPEC 산유할당량은 110만 배럴인데 국내적으로는 160만배럴의 사용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 中東產油國의 하류부문 진출

GCC 국가들이 추진해온 수출용 精油工場들이 속속 가동되고 있다. 오랜동안 中東의 石油를 구매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여 왔던 소비국들은, 최근들어 GCC 국가들이 그들의 석유판매에 혈안이 되는 상태에 이르자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소비국들이 망각하기 쉬운 것은 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OPEC로 부터 石油製品을 구매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쿠웨이트는 2년전부터 제품수출로 시작, 현재는 原油판매량과 맞먹는 양의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이란은 회교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정유공장이 파괴되기 전인 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제품수출을 시작했었다.

GCC 국가들의 下流部門 진출은 국제석유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소

비국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에 휩싸이게 되었다. 自由世界에 산재해 있는 정유공장들의 가동률은 고작 70%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정유회사들이 초과능력을 처분하는 등 공급과잉 상태의 시장여건에 대비하는 와중에서 막 출발을 시작한 GCC 국가들의 석유제품 산업에는 심각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나마 정제업자들에게 한가지 복음으로 들리는 것은 石油製品 수요가 83년도의 바닥수준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각국의 금년 1·4분기, 2·4분기의 수요가 지난 해 동기에 비해서 각각 5%, 3%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회복 현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北美의 경우 한파 등으로 5%, 極東이 7%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西歐의 경우는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환율상승에 따라, 유럽통화로 구매하는 西歐 소비자들에게는 OPEC 油價인하효과가 상쇄된데 연유한다.

그러나 정제업자들은 늘어난 수요량만큼 OPEC의 정제능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OECD에서 금년 1·4분기 동안 늘어난 石油소비량은 겨우 하루 100만배럴 정도로 총수요량은 하루 3천570만배럴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3% 수요증가율은 연말에 가던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1987년에 OPEC 국가들의 정제능력은 현재의 하루 약 500만배럴에서 750만 배럴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정제능력확대의 대부분은 GCC 국가에서 발생될 것이므로 세계 정유업계의 이목은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

### 輸出用 정유공장의 가동과 전망

GCC 국가들의 신규정유공장들이 가동이 본격화 되면 이들 정유업자들은 응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기존정유업자들과 경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페르시아灣에서 유럽 및 極東까지의 석유제품 수송비용이 배럴당 2.60달러가 소요되며, 美國까지

의 경우에는 그 보다 훨씬 높게 되기 때문이다. 현 재 原油 1배럴 수송료는 약 1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의 경우는 수송비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原油 수송에는 일반적으로 20만-30만 DWT급의 유조선이 사용 되는데 반해 製品的의 경우는 3만-6만DWT급의 유조선이 사용되므로 규모의 경제면에서 불리하다. 둘째로 GCC 정유업자들이 안고 있는 불리한 것으로 자본비용을 들 수 있다. 개발국 정제업자들은 크래킹 시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입비용은 오래 전부터 잡채기금을 설립하여 해결 및 상환해오고 있다. OPEC 下流部門에 대한 한 전문가에 따르면, GCC 국가들이 石油製品을 생산해 수출하기까지, 현 시장이자율을 감안해 볼 때, 기존의 西歐보다 70%의 비용이 더들며 日本 정유제품에 비해서는 거의 40%정도 비용상 열세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근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은 GCC 국가들은 그들의 精油工場 건설비용을 국제자본시장에서 차입하지는 거의 않고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낸다는 결의로 이웃나라 정부들로부터 저율(2-3%)의 차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이율이라면 西歐나 日本의 정유제품보다 비용면에서 약간 유리하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GCC 국가들이 경쟁할 수 없는 상대자는 美國의 정제업자들이다. 美國에까지의 수송비면 이외에도 美國의 정제업자들은 크래킹 시설에는 세계 어느곳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으며, 깨기 어려운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정제시설 고

도화 능력은 유럽평균 혹은 日本보다는 앞서 있지만, 아직도 美國에 비하면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경쟁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GCC 정제업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하여 石油製品 시장에 침투할 것이냐이다. 그들은 시장침투 대상지역으로 유럽과 極東을 목표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의 3가지 기본전략의 대안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i) 가격경쟁으로 일관하는 것 ii) 現物市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iii) 기존의 마아케팅망을 매입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것등이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가격경쟁에 호소하는 것은 GCC로서는 설득력이 없다. GCC 정제업자들도 다른 지역의 정제업자들과 똑같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原油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것은 OPEC 油桶구조를 와해시킬 소지가 대단히 크다. 석유제품가격은 이미 최하한선까지 내려갔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가격경쟁을 벌일 경우, OPEC의 原油가격의 또 한차례 인하회오리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論理를 익히 알고 있는 쿠웨이트는 제품시장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가격경쟁을 우회하고 있는 사실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 쿠웨이트의 戰略

1982년 KPC의 總石油製品 수출량 1억 3천500만배럴의 44%는 極東지역의 시장에, 28%는 西歐 시장에 판매했는데 北美지역으로는 전혀 수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품수출량중 거의 대부분이 現物市場에서 유동가격으로 판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PC는 공급과잉으로 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개발국들의 정유업자와는 달리 대폭적인 가격할인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다. 시장성이 없는 燃料油 판매시장으로 정제능력 고도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濠洲 및 極東시장의 확보등을 통하여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다.

1983년 KPC(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는 걸프社로부터 북서유럽에 있는 2개의 정유공장과 1500개의 주유소를 매입함으로써 유럽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당시 걸프社는 동 지역에서의 제품판

原油 생산 · 정제능력 및 소비현황  
(單位 : 백만B/D)

지 역	原油生産	정제능력	소 비 량
中 東	12.0	3.6	1.8
서 부 유 럽	3.5	16.7	12.2
北 美	11.7	17.9	16.1
南 美	6.4	8.2	4.6
아시아및태양주	2.9	10.5	8.3
아 프 리 카	4.8	2.3	1.7
共 産 圏	15.1	16.8	13.2
計	56.4	76.1	57.9

〈資料〉 BP



□ 特別資料 □

매량 하루 13만배럴로부터 손실액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인지라 KPC의 마아케팅시설, 매입제외에 꽤히 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KPC는 많은 마아케팅시설물을 무턱대고 한꺼번에 매입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끝에 사용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매입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렸다. 최초로 매입한 것은 스칸디나비아와 베네룩스 3국의 마아케팅 시설이었으며, 그후 걸프社가 이탈리아에서의 정유공장 가동을 중지하자 그곳에서 우선 마아케팅 시설을 사들였다. 지금까지 KPC가 유럽지역에 판매한 석유제품은 걸프로부터 사들인 상기 두개의 정유공장에서 정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정유공장의 앞으로의 존립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하나 결국 정제시설 고도화로 정제능력이 하루 55만 배럴에서 65만배럴로 늘어날 국내정제능력으로 대체될 공산이 크다.

KPC는 앞으로도 외국의 마아케팅 시설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英國에 있는 걸프의 마아케팅 시설의 매입문제이나 밀포드 헤이븐 정유공장의 걸프 지분을 인수하는 문제는 아직도 미지수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KPC가 매력을 느끼고 있는 지역은 日本을 비롯한 極東지역이다. 이미 홍콩에서 항공유 급유 시설을 매입했는데 美國이 견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의 진출은 심한 가격경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비록 보잘것 없는 마아케팅 시설 투자이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무시 못할 정도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KPC는 해외 마아케팅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石油産業에서 누릴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을 확보했다. 한 예로 운활유 판매에 있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신 소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中東산유국의 석유제품 수급전망

	1990년말 정제능력	生産量	内需量	제품잉여
쿠 웨 이 트	650	478	78	400
리 비 아	350	258	168	90
사우디아라비아	2,225	1,638	617	1,021
아랍에미레이트	340	250	210	40
알 제 리	438	322	142	160
計	4,003	2,946	1,215	1,711

註) 생산량=정제능력×0.8(가동률)×0.92  
(제품수율)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KPC는 자국에서 정제되는 모든 정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아케팅망을 구축하거나, 생산되는 原油 전량을 정제할 수 있는 정유공장 확보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 바라는 것은 스파트 고객을 장기계약 구매자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인데 공급의 안정을 확신시켜 고정구매자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이라크 전쟁과 같은 사건으로 페르시아灣이 봉쇄될 경우에는 KPC가 제 3국으로 부터 매입해서 공급을 계속해주는 방법 등의 유인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이와같은 고객유치 정책은 실효를 거두어 스파트 판매량이 지난해의 경우 거의 50% 수준이었으나, 30~40%로 대폭 줄어들었음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中東제국의 석유정제능력 현황과 확장계획  
(單位: 천B/D)

	精 油 工 場	1983년 현재	확 장 계 획	1990년 말능력
사우디아라비아	内 需 用			
	라스타누라*	510	-	510
	계 다	110	-	110
	리 야 드	120	-	120
	알 부(I)	170	-	170
	알 부(II)	-	250	250
	카 시 마*	-	150(1987가동)	160
	小 計	910	410	1,320
	輸 出 用			
	알 부	-	250(1984.9월가동)	250
	주 베 일	-	250(1985년초가동)	250
	라 비 그	-	325(86년초가동)	325
카 프 지	30	-	30	
미나, 사우드	50	-	50	
小 計	80	825	905	
합 計	990	1,235	2,225	
쿠 웨 이 트	미나, 알, 아마디	250	-	250
	슈 아이바	200	-	200
	미나압들라	144	56(86년가동)	200
	합 計	594	56	650
아랍에미레이트	움, 알, 나르(I)	15	-	15
	움, 알, 나르(II)	60	-	60
	루와이스	120	45(86년가동)	200
	아 주 만	-	100(80년대말)	100
	합 計	195	145	340

註) \*내수, 수출겸용  
(資料) Energy July 1984

쿠웨이트가 진출한 下流部門에서 적어도 장부상으로 이익이 실현되었으며, 1983년 6월말로 종료된 회계연도에 KPC의 子會社이며 국내정유를 담당하고 있는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는 순익 2억62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가스액화 부문에서도 1억5천440만달러를 올렸다. 이것은 전년에 비하면 두배 가까운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 사우디 아라비아의 戰略

쿠웨이트의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의해서 적지 않게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수출용 정유공장이 일단 가동되면 사우디 제품수출 능력은 그들이 지금까지 수출해온 원유량만과 맞먹게 될 것이다. 原油의 대부분은 동국이 오랜동안 유대관계를 맺어온 서방석유 회사들에 의해서 서방시장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정부공시 가격으로 장기 공급계약 구매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사우디의 대형 수출용 정유공장은 서방 메이저들과 합작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쿠웨이트만큼의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는 제품의 시장침투 문제에 상당한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중요한 3개 수출용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홍해연안의 안부단지에 하루 25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페트로민과 모빌과 합작으로 건설하여 거의 완성되었으며, 내년초에 가동 예정인 25만배럴 정제능력의 주베일공장, 86년초에 가동예정인 정제능력 하루 32만5천배럴의 라비그공장이 그리이스의 페트롤라社와 합작으로 건설되고 있어 세계 石油産業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合作先의 어느 누구도 가동후 처음 몇년동안은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렇게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정제능력 즉 크래킹 시설을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셀과 모빌 정유공장은 시장이 원하는 경질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수요에 대응하여 정제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라비그 공장은 연료유 收率이 상기 두개 정유공장(25%)보다 높아 거의 50%의 燃料油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모빌의 안부 정유공장은 계획보다 빨리 준공되어 현재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다. 합작선에게 한가지 유리한 것은 합작계약서에 명시

된 가격정책인데, 그에 의하면, 제품생산량의 50%는 합작선이 판매하기로 되어 있고, 로테르담과 싱가포르 現物市場 가격으로 인수하여 제 3자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제품 판매지역으로는 精油工場의 위치에 따라 모빌의 안부 공장제품은 주로 西歐 및 美國 등지에 판매되고, 셀의 주베일 공장제품은 極東지역을 커버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의 페트로민이 판매해야 할 제품의 물량은 과연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페트로민은 제품의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아마니 石油相이 개발국 마아케팅 시설의 구매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실천에 옮길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방향의 윤곽은 알 수 있다. 시장진출을 위한 시설물의 매입과는 별도로 페트로민은 서방의 마아케팅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매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정보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매 조건등 제품판매 일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출용 정제능력(계획)

精油工場	정제능력 (B/D)	合作先	제품별생산능력 (B/D)	가동시기
안 부	250,000	모 빌	나프타(18,000) 휘발유(68,000) 등유/제트油(35,000) 가스오일/輕油(75,000) 연료유(54,000)	84년말
주 베 일	250,000	셀	벤젠(5,000) LPG(5,000) 나프타(57,000) 등유/제트油(43,000) 디젤(75,000) 연료유(65,000)	84년말
라 비 그	325,000	페트롤라	나프타(68,550) 등유/제트油(33,375) 가스오일/輕油(74,490) 연료유(139,710)	86년초

〈資料〉 이코노미스트誌